

창립: 1991. 12. 29.

제32-01 2023. 01. 01.

##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 월 행사 안내

1월 1일(주일)  
신년감사예배, 성찬식

1월 11일(수)  
수요찬양예배

1월 22일(주일)  
교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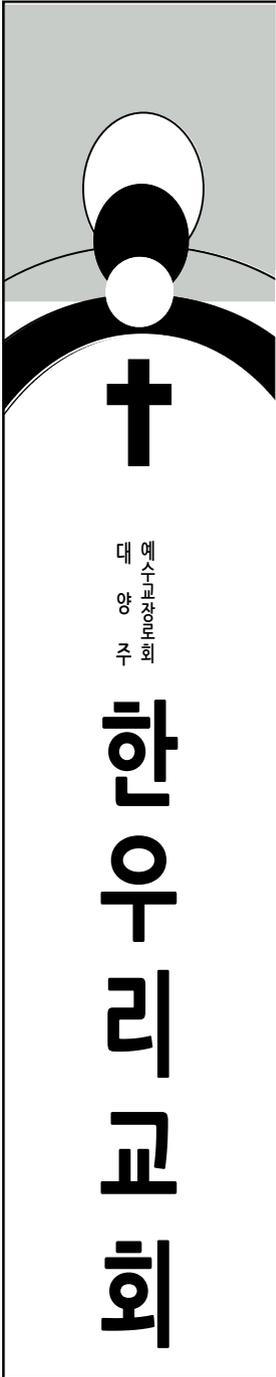
1월 27(토), 28일(주일)  
꿈의 나라 여름성경학교

1월 29일(주일)  
목자세미나  
교육부서 졸업연합예배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이번 주일은 신년감사주일입니다.  
새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올 한 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3. 오늘 4부예배는 부암제일교회  
원로목사이신 김현규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 오늘(1일) 예배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 권정호 김영현 김태원 김희홍  
민봉식 박승욱 배정석 손보영 신규식  
원재호 이강용 이근식 이성열 임상규  
정민혁 조기동 조종면 주성은 최병한
5.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교회사무실 또는 온라인 서식
6. 1부 예배(8시) 경배와 찬양팀에서  
키보드로 섬기실 분을 구합니다  
문의 김민재 목사 020 4011 7176
7. 3부 예배(12시) 경배와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실 분을 구합니다.  
자격: 한우리반 수료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8.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1/2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9. 교역자 동정:  
김진영 목사 휴가 12.29 - 01.07  
김민재 목사 휴가 01.04 - 01.20

##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1월 22일(주일) 오후1:30
- 교회학교 패밀리 서비스 (12.25. - 1.22.)  
기쁨, 꿈, 약속의 나라 자녀들은 비전홀과  
조이홀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 교회학교 졸업연합예배:  
일시: 1월 29일(주일) 오전 10시30분 바울홀  
(꿈, 약속, 비전의 나라 주니어 & 시니어)
- 약속의 나라: 2023 어린이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및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은주 책임교사 021 321 457

## 전도부

이번 주일 거리전도는 브라운스베이 비치  
근처에서 3시에 시작합니다. 거리전도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초대하며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월	일	목장 & 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	22	할렐루야 찬양대
	29	시온 찬양대

## 교우동정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교회주보

그 풍성한 생명 3  
새 역사 앞에서 (수 1:1-8)

2023.01.01.  
설교: 남우택 목사

1. 지난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 미국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미국 겨울 폭풍 사망자 64명으로 늘어...**

결항장전도 계속

흑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 폭풍으로 지난달 27일 저녁까지 미 12개 주에서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NBC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버펄로시는 이날 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버펄로 내 폭설 희생자는 모두 28명이 됐고, 버펄로가 포함된 이라키운티와 인접한 나이아가라카운티를 합쳐 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 정보 사이트 플라이어웨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인 전날 미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천488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데 이어 이날도 2천800편 이상이 무더기로 결항했다. 강추위 속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메인주에서 사애틀까지 수십만 가구 및 사업장에서 전력이 끊겼다. 다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전 피해 가구 역시 전날 180만 가구에서 이날 15만 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전체 인구의 60%에 겨울 폭풍 관련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출처: 연합뉴스)

## 뉴질랜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소년 무단결석에 ‘골머리’...**

절도 범죄 사건도 반년

뉴질랜드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무단결석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매체가 지난달 10일 보도했다. 뉴허브는 2022년 2학기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들의 40%만 규칙적인 등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매체는 청소년들의 무단결석률이 높은 지역에서, 흥진 자동차로 가게 등을 들이받고 물건을 훔쳐 가는 ‘램페이지’ 사건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출석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허브는 뉴질랜드 학생들의 출석률이 호주,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태도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이상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1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 장관이며 교육 장관인 크리스 힌킨스는 오랫동안 쌓여온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무단결석을 하는 청소년들이 나쁜 행동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학부모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미국]**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도심이 마비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이 땅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재난에서 속히 회복되며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소서.
- **[뉴질랜드]**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주를 찾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다음세대 되게 하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체들을 도와주셔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